



한전 전북지사, 어린이재단 사회공헌 업무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기희)는 7일 한전MCS 전북지사(지사장 김성호)와 함께 전북지역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북지역의 취약계층 아동가정을 발굴하여 학습, 의료 등의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공헌 협력 등 아동복지에 관한 활동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전MCS 전북지사는 사회공헌 업무협약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풍성한 추석명절을 맞이 하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7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한전MCS 전북지사 김성호 지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대상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중중, 초록우산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이중중학교(교장 박성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에 '해외이동 식수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박성훈 이중중학교 교장, 이중중학교 학생자치회, 한선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다.

앞서 이중중학교 학생자치회(회장 김주연)는 7월 18일, 어려운 이웃과 해외이동 돕기라는 목표로 일뜰잔치를 개최했다. 학생자치회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며 1,079,740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번 지원금은 해외이동 식수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농협 김제지부, 농협김치 밀키트·사랑의쌀 전달

농협 김제지부부는 7일 김제시청과 함께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농협김치 밀키트 및 사랑의쌀(500만원 상당의 물품)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장, 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날 전달된 밀키트 제품은 한국농협김치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농협 최초 지역농협 우수기공제품을 연하여 만든 김치찌개·김치찌개 제품과 100% 국산 농축산물과 백종원 요리연구가의 비법 레시피로 만든 계육볶음으로 푸짐하게 구성되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시설·군부대 사랑 나눔 실천

남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방문해 소외될 수 있는 이웃과 군 장병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최경식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6일 35시간 백미어디와 남원순환 대대를 방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과 향토방위,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실업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노인 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14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 승전보 올려

순창군청, 개인단식 금메달·혼합복식 금메달·단체전 동메달 획득

소프트테니스의 메카 순창군청 소속 소프트테니스팀(단장 양은욱)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2 안성 한국실업 소프트테니스 추계 연맹전에서 남자 단식 금메달, 혼합복식 금메달, 단체전 동메달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2일 경기도 안성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혼합복식 부문 결승전에서 순창군 김병국 선수는 전남도청 정상희 선수와 조를 이뤄 순창시청 김민열 선수와 문경시청 엄예진 선수를 5대 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틀 뒤에는 단체전 준준결승에서 수원시청을 2:0으로 격파하며 금빛 기대감을 모았으나, 준결승전에서는 달성군청과 접전을 펼치다 간발의 차이로 2:1로 패배하여 어렵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 6일에 있었던 남자 개인 단식 결승전에서는 순창군청의 진인대 선수가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서울시청팀의 박기현 선수와의 접전을 벌이며 경기 중 반까지 3:2로 뒤처지자 패색이 짙었으나,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4:3으로 손에 땀을 쥐는 역전승을 거두었다.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 양은욱 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주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훈련해서 순창군 소프트테니스가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특별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일 기자



전북자본센터, 태풍 피해지역 긴급 복구 지원

(사)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포항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지원활동에 나섰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피해당일 포항의 대규모 피해상황을 인지하여 경북지역(포항시)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탁자(2.5)와 이동급식차량(5), 살수기 및 자원봉사자를 3일간 피해현장을 지원·운영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수재민들의 세탁지원(수거→세탁→건조→배달) 활동과 현장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소방, 공무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종식(2식 600인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0여명의 도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접수구역 가구구조, 토사제거, 매장물품 정리, 도로세척 활동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은행, 전통시장 장보기 물품 군산시에 기탁

군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7일 전통시장 장보기 물품(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지역 사회의 상생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희망의 공방방 지원 사업 등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전통시장 장보기 또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관내 취약계층에게는 이웃사랑의 온정을 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대 홍보대사, 한가위 행사 전통놀이 마당 열어 '호응'

전북대학교 학생 홍보대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학 구성원을 위한 전통 놀이마당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학생 홍보대사들은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건자광장과 구정문 일대의 거리 등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가위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활력을 주고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교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투호놀이와 양궁 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했다.

김신영 학생홍보대사 대표는 "추석을 맞아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활력 넘치는 추석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한가위 선물 나눔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7일 정석케미칼(대표 김용현)의 후원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추석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을 찾은 2022학번 유학생 5개국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스스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세트를 전달했다.

중국 유학생 위강권(음양화 1년)학생은 "유학 생활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문을 익히는 즐거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준 분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현 대표는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아 유학 생활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많은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격려와 나눔 섬김 등의 봉사를 실천해 준 정석케미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은성 기자



장한종합건설, 남원사랑상품권 1000만원 전달

남원시는 7일 (주)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이사 추석을 맞아 고창인 남원시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하며 남원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주)장한종합건설이 기입한 적십자 교역기부자율금(RCHC)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재철 대표는 남원 출신으로 대한건설협회 대의원,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 전북에어항공본부 부총재,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으며 사회활동에 활발히 앞장서고 있다.

장한종합건설은 전북 지역 향토 종합건설회사로서 전기·건축·토목 공사에 정력이 나있는 기업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과 사회 환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소재철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원 이웃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추석을 맞아 7일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농촌사랑기금 사랑나눔 고창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백미 10kg들이 712포대(1,808만 원 상당)는 고창농협의 관할구역인 고창, 고수, 부안면 등 3개 읍면의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농협 고창군지부 이문구 지부장, 고수면장, 부안면장 등이 함께 했다.

고창농협은 농업·농촌발전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도농협으로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사랑기금은 고창농협에서 농촌사랑운동 및 사회공헌 활동 실천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주위에 관심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농협, '농촌사랑기금 사랑나눔' 전달식

세계시에전북비엔날레, 제1회 학생시에공모전

제회 학생시에공모전에 금상 3점, 은상 6점, 동상 31점, 특선171점, 입선 349점 등 총 560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세계시에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한국사건의 미래와 서예교육의 진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처음으로 공모전 형식의 학생시에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 총 721점이 이번 공모전에 출품, 고등부 금상에는 해서로 소식(蘇織)의 시를 쓴 김동현(18세, 경남 양산시 2년)학생이, 중등부 금상에는 '행복은 항상 웃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해비라기를 그린 문초연(정음정음 2년)학생이, 초등부 금상에는 한글로 '독서 속에 길이 있다'를 쓴 박기영(충남 합동 초등학교 6년)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